돌아온 아빠 '가족의 힘' 웃음 되찾다 돌아온 엄마

'가정의 달' 희망 솟는 두 가족

알코올 중독을 극복, 가정으로 돌아온 최영일(가명)씨가 가족사진을 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물리치료사 일을 하는 최영일(가명·43)씨의 사진첩에는 30대의 모습이 없다. 술에 취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사진기 앞에 설 자신이 없었던 탓이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10년이었다.

지난 94년 결혼한 그는 어느 순간 사람들과 마시는 술이 귀찮아 졌고,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날이 많아졌다. 술에 취한 채 회사에 출근하는 게 일상이 됐고, 동료와도 멀어졌다.

알코올 중독 치료받고 3년만에 두 딸 품으로

"큰 애가 두 살이었을 겁니다. 아내가 일을 하러 나가서 애를 보게 됐는데, 술에 취해버렸죠. 애가 깨서 옆에서 몇 시간을 울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열쇠를 두고 나갔던 아내는 울음소리에 발을 '동동' 굴리며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어야만 했다. 이 사건 후, 2004년 그는 스스로 '다사랑 병원'에 입원했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그는 "신이시여 내게 힘을 주소서!"라고 수없이 되뇌였다.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찾던 신은 바로 두 딸 은영(9·가명)과 지영(6)이었다.

최씨는 퇴원 후 지난 4월 물리치료소를 차렸다. 컴퓨터에는 가족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깔려 있다. 환하게 웃는 최씨와 부인, 아이들의 사진 속 얼굴엔 과거의 아픔을 찾아볼 수 없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년 만에 엄마와 같이 살게 된 민수(10·가명)는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마냥 즐겁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아빠 김모(52)씨는 지난해 부도로 어디론가 멀리 떠났다. 10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 디스크를 앓았던 엄마 김나영(가명·47·광주시 서구 양동)씨는 빚을 갚기 위해 무리해서 식당 일을 했다. 일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허리에 마비가 와 하루종일 누

1년간 병마와 싸워 이겨 "함께 살게돼 너무 행복"

워있어야만 했다. 아파트에서 살던 가족은 단칸방으로 옮겼다. 결국 지난해 4월 민수는 누나 민지(13·가명)와 함께 고아원으로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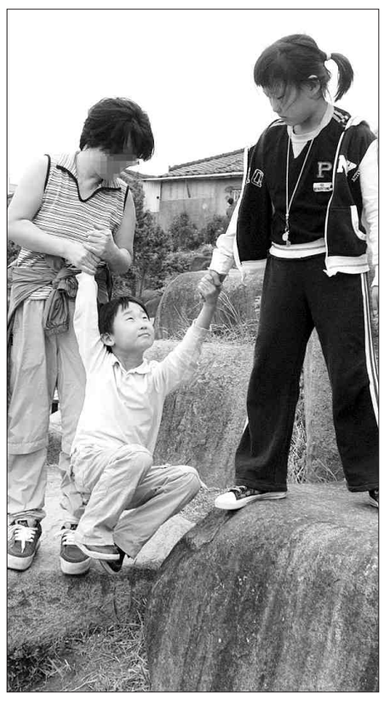
아이들은 "말도 잘 듣고 청소도 열심히 하겠다"며 울었지만, 엄마는 "건강해져서 꼭 데리러 갈께"라며 약속했다.

그리고 1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며 재활훈련을 받은 엄마는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다. 올 5월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방 두개가 있는 아담한 집도 마련했다.

김씨는 "아이들은 함께 이삿짐을 정리하고 새집 맞이 청소를 하는 등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웃음을 되찾은 민수는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살게 돼 너무 기쁘다"며 "이젠 아빠만 돌아오면 부러울 게 없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집 근처 공원에서 1년여 만에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 김씨와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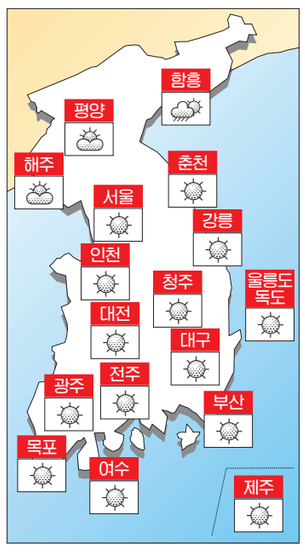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월의 푸른하늘

대체로 맑겠다.

5월 30일 (음 4월 14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조금	15~25℃
목포	구름조금	16~23℃
여수	구름조금	16~23℃
완도	구름조금	15~22℃
구례	구름조금	13~26℃
해남	구름조금	14~23℃
장흥	구름조금	14~23℃
고흥	구름조금	14~25℃
순천	구름조금	13~26℃
영광	구름조금	15~24℃
진도	구름조금	14~23℃
전주	구름조금	14~25℃
남원	구름조금	13~25℃
정읍	구름조금	14~25℃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00:57 12:44 썰물 06:23 18:19
여수 밀물 07:51 20:31 썰물 02:00 13:56

▲해뜸 05:20 ▲해짐 19:40 ▲달뜸 18:14 ▲달짐 03:4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1(목)	6/1(금)	2(토)	3(일)	4(월)	5(화)
날 씨						
최저/최고	14/27	15/25	18/24	16/27	16/28	16/27

광양 앞바다 선박 추돌 기름 유출

29일 새벽 2시20분께 광양시 광양항 LNG 터미널 북동쪽 1.8마일 해상에서 부산 선적 '2001 조양호'(650t)가 예인선 '21 조양호'(48t)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21 조양호'의 오른쪽 선미 탱크 부분이 30㎝가량 찢어지면서 탱크 안에 있던 기름이 유출돼 사고 선박 주변 2~3곳에 가로 200m, 세로 100m의 갈색 유막이 형성됐다.

여수해경은 방제정·경비정·민간 방제선 등 9척을 동원해 선박 주변에 오일펜스를 치고 긴급 방제작업(사진)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수심이 낮은 해역에서 '21 조양호가 일시 정지하면서 이끌려 오던 '2001 조양호'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기름 유출량을 조사 중이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질식 우려 미니컵 젤리제품 수입금지

어린이 질식사고의 우려가 있는 일부 미니컵 젤리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당국은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서울의 A업체가 대만에서 수입한 '종합후르티바이트'(캔디류 중 젤리)를 어린이가 먹고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제품을 수입금지하고 소매점(학교주변 문방구) 또는 일반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품을 자진 반품하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사고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문제의 제품과 유사한 모양과 크기의 미니컵 젤리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잠정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추가로 수입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식약청은 모든 미니컵 모양의 젤리제품은 냉동상태로 팔지 말고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판매하지 말도록 판매업자들에게 당부했다. /연합뉴스

지하수 '노로 바이러스' 내달부터 오염실태 조사

환경부는 6월부터 집단식중독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하수의 노로 바이러스 오염실태 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20개 지점에서 노로 바이러스 오염 여부에 대한 시범조사를 벌인 뒤 내년에는 전국 350개 지점에서 노로 바이러스 오염실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2014년까지 총 8천686억원의 예산을 투입, 농어촌 지역의 노후한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고 일부는 지방상수도로 전환키로 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상담 1588-9128로

'SOS 지원단' 내달 운영

'학교폭력 SOS 지원단'이 다음달 1일부터 운영된다.

'학교폭력 SOS 지원단'은 상담센터와 지원센터로 나뉘어 학생·학부모·교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담센터는 학교폭력 심리상담, 대처 및 처리 방법, 의료·법률 정보 등을 알려준다. 국번 없이 '1588-9128'(구원의 팔)로 전화하면 된다.

지원센터는 전남을 비롯한 서울·부산·경남·전북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된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해학생을 조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어린이 놀이터 '중금속 놀이터'

방부목재 시설 오염농도 철재보다 최고 311배

방부목재로 만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중금속 오염 농도가 철재나 플라스틱보다 최고 31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최근 여수 지역 놀이터 4곳 등 전국 10개 지역 64개 실외 어린이 놀이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금속(구리·크롬·비소·납·카드뮴·아연·망간·수은 등 8종) 노출실태 연구 용역 조사결과를 29일 공개했다.

토양 중금속 농도는 크롬을 제외한 7종 모두 모래 공급업체에서 구입한 비교 토양보다 중금속 별로 2~46배 높게 검출됐다. 페인트칠이 된 놀이시설 주변 토양의 납 농도(8.79mg/kg)는 페인트칠이 되지 않은 토양의 납 농도(7.86mg/kg)보다 1.12배로 높았다.

방부목재 놀이터 시설 표면의 구리·크롬·비소 농도(오염도)는 철재·플라스틱 시설보다 최고 311배 높고 납은 철재 시설이 방부목재 또는 플라스틱 시설보다 1.5~6배로 높게 검출됐다.

▲방부목재(CCA)=크롬과 구리, 비소 등이 함유된 화학 방부제로 처리된 목재.

놀이시설 표면 접촉을 통해 노출될 수 있는 중금속은 구리와 크롬, 비소, 납 등 4종으로 분석됐다. 철재 시설 표면의 페인트 중 납 농도는 무려 2만7천200mg/kg으로 국내 용출 기준(90mg/kg)보다 300배 이상 높게 검출됐다.

방부목재 시설의 중금속 함량은 구리 661mg/kg, 크롬 1천115mg/kg, 비소 894mg/kg 검출돼 어린이들이 중금속에 노출되고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국민 4명 당 1명 이상 감기로 병·의원 치료

올들어 국민 4명당 1명 이상이 감기로 병·의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2007년 1·4분기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병·의원을 찾은 감기 환자는 총 1천296만2천명(2천133만3천 건)이었다.

감기환자는 2번 정도 병·의원을 찾았으며, 1인당 진료비는 3만433원. 감기환자 중에는 급성상기도 감염이 773만9천 명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공단 부담과 본인 부담을 합한 진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증가한 7조7천796억원에 달했다. 노인 진료비는 2조1천11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7% 늘어났다.

노인 진료비가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1%나 됐고, 노인 1인당 진료비가 50만4천원으로 국민 1인당 진료비 16만3천원에 비해 3.1배나 높았다. 중증질환인 암 진료비(입원)는 3천721억원으로 27.1% 증가했다. /연합뉴스

사립교사 공채안내

영양교사 교수진 특별초빙강좌
2008년도 사립공채 모집안내
사립학교 수급계획에 따른 공채

지금(올해) 바로 최적기입니다
"전 과목"
2009년부터 모집요강 변경예정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직원채용(정규직)
◉2년제이상 졸업자
◉남,녀(30세미만)
◉이력서지참요

주관:전국교육신문사
교육정보연수원
광주지원 TEL.062)511-6359
H.P.017-631-4467
서울지원 TEL.02)3664-5263

MODISH 기품과 중후함으로 완성되는 엔틱의 명품—
모디쉬갤러리 Sale
www.modishgallery.co.kr
모디쉬갤러리 오픈 세일 이벤트
30% 오페라 침실세트
장롱, 화장대, 침대(메트리스별도), 협탁
몽블랑 2+2 가죽쇼파(5조한정)
2,900,000 → 1,400,000원
아그네스 2+2 가죽쇼파(5조한정)
3,250,000 → 1,600,000원
황옥 4人 대리석식탁(5조한정)
1,300,000 → 690,000원
엔틱전화기(선착순 20명)
→ 39,000원
미가엘 침실세트(연결장롱12자+화장대세트+침대(K)+협탁)
Open기념 황토쉘침대, 장수온돌침대 한정판매
HS-6720 비토 1,990,000원 (5조한정판매)
JSD-비토Q 1,470,000원 (5조한정판매)
미가엘 거실장식세트
미가엘 5단서랍장
아시아 2.2 소파
미가엘 화장대
오메가 대리석 식탁세트
동광주IC
모디쉬갤러리 광주전시장
홈플러스 동광주점
문흥지구입구
육교
한국통신
모디쉬갤러리 광주전시장 ☎(062)252-3001~2 / 금호월드 7층 ☎(062)350-8764